

코스피	코스닥
3883.68 (+59.84)	879.15 (+6.65)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2.572 (-0.028)	1430.80 (+3.00)

韓美 관세협상 ‘끝장 회동’… 對美 車수출 회복 분수령

김용범·김정관, 이틀만에 재방미
APEC 앞두고 막판 줄다리기 예고
車관세·투자조건 막판 조율 남아
김용범 “국익 맞는 타결안 찾을 것”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막판 후속 조율을 위해 귀국 이틀 만에 다시 미국으로 향했다. 양국은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이미 협상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몇가지 쟁점이 남아 추가 협의를 위해 급히 방미길에 오른 상황이다.

22일 오전 김 실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국 간 의견이 많이 좁혀졌지만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한두 가지 분야가 남아 있다”며 “남아 있는 쟁점에 대해 우리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 이틀 만에 다시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협상단은 이번 방미를 통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관세협상 세부 조율에 나선다.

이번 협상은 양국 정상이 만나는 AP EC를 불과 일주일 앞둔 만큼 사실상 양측의 마지막 담판 성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 큰 틀에서 양국 관세협상 그림이 이미 그려진 상태에서 몇가지 주요 쟁점에 대한 줄다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측으로선 최대 수출품목인 대미 자동차 수출이 큰 폭 감소하고 있는만큼 이번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한다는 압박이 크다. 협상에 보다



메트로경제 ‘2025 제약·바이오포럼’ 성료

22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 주최로 열린 ‘2025 제약·바이오포럼’에 참석한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가 기조강연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협상 결과는 대미 자동차 수출 회복과 직결된다.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대비 현재 66% 수준으로, 품목별 관세 25%에서 15%로 감소할 경우 연말부터 본격적인 회복세가 예상된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 1~9월 자동차 수출은 540억8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지만, 미국과 북미 수출은 각각 268억3300만 달러(-11.9%), 226억6900만 달러(-14.4%)

로 감소했다. 유럽과 아시아 지역 호조가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한 상황이다.

관세협상 타결 시 ▲미국 상호관세 25% → 15% 인하 ▲3500억 달러 투자 규모 유지 ▲단계적 투자 및 보증·대출 확대 ▲조선협력 프로젝트 MASG A 가동 등 투자·교역 패키지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미국 측으로서도 협상 타결이 지연될 경우 한국의 투자 지연 손해를 볼 수 있어 APEC 정상회담을 전환점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와 통상 전문가들은 남은 쟁점으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단계적 투자와 보증·대출 확대, 원화 투자 활용 △한미 간 이익 분배 방식 및 외환시장 안정장치 △미국산 대두수입 확대 등 통상 및 투자 관련 사항을 거론한다. 또 지난 8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합의했지만 발표되지 못했던 안보 관련 사안(국방비 증액, 우라늄 농축 제한 완화 등)도 이번 협상에서 포함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2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국제금값 6.3% 뚫 12년 중 낙폭 최대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금 선물 가격도 동반 급락세

고공행진하던 국제 금값이 21일(현지 시간) 6%가 넘는 급락세를 보이면서 최근 12년 중 최대 낙폭을 보이고 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미 동부시간 기준 오후 1시45분 온스당 4115.26달러로 전장 대비 5.5% 하락했다. 장중 6.3% 떨어진 4082.03달러까지 내려가면서 2013년 이후 최대 일간 낙폭을 기록했다.

국제 금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약 60% 상승하며 파죽지세의 면모를 보였다. 전날까지도 현물 기준 온스당 4381달러 선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3분기 실적 시즌이 개막과 함께 위험자산 선호가 강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국 기업들은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증시를 견인하고 있다.

금 선물 가격도 동반 급락세를 보였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은 온스당 4109.1달러에 거래를 마치며 전장보다 5.7% 하락했다.

국제 은 현물도 같은 시간 전장 대비 7.6% 급락한 온스당 48.49달러에 거래됐으며, 백금 가격도 5% 내리면서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오늘 24일 예정돼 있는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로 향한다. 미국 연방정부의 섣다운(한시적 업무 중단)으로 인해 주요 경제 지표들의 발표가 중단되면서 당초 발표 예정일이었던 15일보다 9일 지연됐다.

오는 28~29일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통화정책 결정까지 예의주시될 것으로 보인다.

/신하은 기자 godhe@



국제 금값이 12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한 22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 모니터에 국제 금 시세가 나오고 있다. /뉴스

공적연금 의존 92%… 퇴직·개인연금 참여율 절반 수준

고령화시대 금융에서 답 찾다

① 연금 3층탑 쌓아라

노후생활비 월 120만원 부족
연금 운용 주도권이 노후 좌우
“퇴직·개인연금 비중 높여야”

등산의 목표는 정상에 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무사히 내려오는 일이다. 산을 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 사고가 더 많이 나기 때문이다.

연금도 마찬가지다. 무작정 모으는 것보다 노후까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설계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나의 연금이 무너지는 것을 대비해 국민연

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라는 세개의 다리, 즉 연금 3층탑을 균형있게 쌓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KB금융경영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KB골든라이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 생활자금은 월 350만원인 반면 실제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은 23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생활비와 비교해 120만원 부족하다.

이는 은퇴가구의 대부분이 공적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영향이 크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학·군인·공무원연금의 공적연금을 보유한 은퇴가구는 92.1%로 가장 많았지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보유한 가구는 각각 54.3%, 53.8%에 불과했다.

황원경 KB금융경영연구소 부장은 22일 “한국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지만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는 의지와는 달리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노후 생활비 재원을 공적연금에만 의존해 소득보장이 취약한 가구가 3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비중을 높여 소득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퇴직연금, 운용따라 달라져

퇴직연금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선 금액이 아니라 운용의 주도권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급여(퇴직금)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제도다. 이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이 있다.

우선 승진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으며, 장기근속중이라면 확정급여형(DB)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DB는 회사가 퇴직급여를 운용하는 것으로, 계속 근로연수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곱해 계산한다. 예컨대 연봉 6000만 원인 근로자가 매년 임금이 5% 상승하는 회사에서 20년을 다니고 10년간 회사를 더 다닐 경우 퇴직급여는 2억2294만 원이다.

임금피크제로 연봉이 줄어든 경우 확정기여형(DC)형으로 옮기는 것도 방법이다. DC는 확정기여형은 기업이 매년 퇴직급여를 납입하면 근로자가 운용방법을 선택해 퇴직급여를 수령한다. DB형과 달리 임금감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본인의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다. 〈4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메트로 한줄뉴스



▲서울 아파트 3채 중 1채, 10·15 대출 규제 직접 영향권 /사진 뉴시스
▲박지원 “전한길, 싱가포르에李대통령 비자금 1조? 정신나갔다”

▲중기중앙회 찾은 국힘 지도부 “APEC까지 관세협상 성과내야”
▲국힘 밸류업특위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 공감… 11월 은행권 간담회”

▲1심서 무죄 받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 장영하, 2심서 징역형
▲한미 비자 워킹그룹 2차 회의… 韓기업 전담팀 운영방식 협의